

저개발국 교육·복지 지원 ‘봄’ 복지마을·학교·유치원 잇따라 건립 간다라 문화보존운동·빈곤층 돕기도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원흥종이 저개발 국가의 학교건립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복지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조계종과 태고종은 스리랑카에 복지마을과 학교건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천태종은 파키스탄에 간다라 문화 보존 위한 단체설립과 학교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진각종은 각국에 설립된 JGO 센터 산하에 유치원을 건립했으며, 원흥종은 고아원을 운영하는 인도 불교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조계종(총무원장 법륜)은 20억 원을 돌파한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 돕기 성금으로 ‘스리랑카 조계종 복지마을’ 건립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5-6월 경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를 입은 스리랑카 어린이들과 노인들을 위해 건립되는 스리랑카 조계종 복지마을은 현지에서 고아원과 양로원을 포함한 현대식 종합복지센터, 고아원, 양로원, 보건소, 종합 관리 사무실, 사찰, 교육편의시설, 방문객 숙소, 공공 화장실, 놀이터, 운동장, 내부공원, 작물 재배터 등이 들어서서 복지마을은 2006년 11-12월 경 완공된다.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지진해일로 파괴된 스리랑카 방갈라 외지라시리 사찰의 학교 건립비 1만5000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태고종은 4월 4일 부원장 혜공, 종단사간행위위원장 수일, 사회부장 백은 스님등 한국인 불자 26명과 스리랑카 외지라시리 사찰 주지 미리세담마와 사스니 및 지진해일 희생자 유가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도재 및 회생자 유가족 초청 위문법회를 갖고 1차로 학교 건립 착공비 5000달러를 전달했다. 나머지 1만달러는 학교완공 무렵에 전달할 방침이다.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3월 24-28일 파키스탄을 방문, 정부관계자와 초등학교 지원사업을 논의했다. 또 이번 방문에서는 인류문화의 위대한 유산인 간다라 유적 보존을 위해 유적 조사와 학술연구에 전념할 ‘한국 간다라 문화교류협회’를 창립했다. 이와 함께 천태종은 산하단체인 ‘나누며 하나되기 운동본부’를 통해 해외 입양아 친부모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진각종(총무원장 효암)은 1월 10일 스리랑카 넬롬보에 운영중인 컴퓨터 직업훈련원인 JGO센터내

에 유치원을 개원하고 지역의 만 6세 미만 미취학 아동 50여명을 입학시켰다. 진각종은 현재 입학 정원을 늘려 더 많은 원아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원흥종(총무원장 법륜)은 1986년부터 인도 캘커타에서 고아와 장애빈곤층 가정의 청소년 300여 명을 모아 키우는 ‘시슈 코루나 상가회(청소년 구호 승가회, 회장 비발 스님)’에 매년 의류와 학습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인도 스님들의 한국 체류시 숙식도 제공하고 있다. 김원우·강유신 기자



태고종 인천총무원(총무원장 법륜)은 4월 12일 월미도 특설도량에서 수륙팔관대회를 개최했다.

국운융성·인천발전 수륙팔관제

태고종 12일 월미도서

태고종 인천총무원(총무원장 대은)은 4월 12일 월미도 특설도량에서 국운융성과 인천발전을 위한 수륙팔관대회를 봉행했다.

총무원장 운산 스님을 비롯해 동방대학장 법장, 중앙포교원장 무공 스님과 김창섭 인천시 정무부시장, 신영은 인천시 시의회부의장, 김인천 인천대 교수 등 정관계, 신도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패불이운으로 시작된 수륙팔관제는 발원문, 대회사, 법어, 설계, 축사, 우리의 다짐, 무애춤, 방생업장참회 문 등으로 3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법어를 통해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난국인만큼 팔관제의 의미를 댈새겨

유주무주고혼의 닛 천도와 산 생명을 방해해 생명의 존귀함을 깨닫자”며 “동참자들은 집으로 돌아가 가족에게 팔관제의 의미와 공덕을 전파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팔관제 봉행위원장 대은 스님은 대회사에서 “수륙팔관제는 중생을 고통을 해탈케하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며 “불교의 자비사상을 통해 인간성을 회복하고 생명의 존엄을 깨달아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풀어나가자”고 제언했다.

팔관제에 동참자들은 우리의 다짐에서 국운융성과 인천발전을 위해 동체대비의 정신으로 협력하고 근검절약, 화합정신으로 경제안정 기여, 국민정서를 순화해 사회경제안정에 앞장 설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김원우 기자

총지종 65회 춘계 강공회

총지종(총무원장 우승)이 4월 18-22일 서울 통리원에서 전국 스승 및 총무원들이 참석하는 제65회 춘계 강공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공회는 불사의식 개편과 다양한 포교 프로그램 개발, 사회복지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 또한 신년하례법회에서 제시했던 안건에 대한 중간평가도 이뤄진다.

총지종은 강공회를 통해 원의회 및 유지재단 이사회, 사회복지재단 이사회, 종의회, 승단총회를 각각 개

최해 중단의 현황문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한 총무원정 활성화와 교세확장을 위한 중장기적인 프로그램 개발에도 나서게 된다.

이와 관련 우승 통리원장은 “총단 운영에는 전 선단과 교도들이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면서 “열린 마음으로 모든 스승님들과 교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행정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조계종 포교사 ‘업그레이드’ 한다

포교사대학원 개원...재교육 역할 기대

포교사들을 위한 조계종 재교육 기관이 개원했다.

조계종 포교원 산하 포교사대학원(원장 도영 스님)은 4월 9일 포교사단 교육관에서 개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포교사대학원은 포교사 품수를 받아 활동중인 포교사를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시켜 전문 포교사 응시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행사는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 포교사단 양성총 단장을 비롯한 포교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양성총 단장은 인사말에서 “한국 불교에서는 최초로 포교사 재교육 기관이 개설됐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개원을 하지만 포교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히자”고 말했다. 도영 스님은 이어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이 포교사대학원 개원을 치하하고 있다.

“포교 현장 체험을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활동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교사대학원은 불교신학문화학과와 불교사회복지학과로 구성되며 2

년 4학기제이다. 교수진은 동국대 교수 법산 스님, 박경준 교수, 권경임 교수, 중앙승가대 유승무 교수 등으로 짜여졌다. 강유신 기자



충주호 중앙탑 광장에서 열린 본원종 수륙팔관대에는 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본원종 통일기원 수륙팔관제

본원종(총무원장 대화)은 4월 11일 충주호 중앙탑 광장에서 남북통일 국민대인기원 방생 및 수륙 고혼 천도 대법회를 봉행했다.

총무원장 대화 스님은 법어를 통해 “오늘의 경제적 번영은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총무원장 대화, 중앙총회 부의장 혜원, 감찰위원장 대성 스님 등 5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강유신 기자

천태종, 낙산사에 1천만원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이 4월 11일 화재로 전소된 조계종 양양 낙산사에 1천만원의 위로금을 전달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은 “많은 불자들의 마음의 고향인 낙산사가 전소돼 마음이 아프다”면서 “불자들의 정성이 모여져 하루빨리 사찰이 복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

절하다”고 말했다.

위로금은 이날 천태종 총무원장 월도 스님에 의해 낙산사 주지 정년 스님에게 직접 전달됐다. 김원우 기자

조동종 부종정에 제공 스님

조동종은 4월 16일 부종정에 제공 스님(사진)을 추대했다.

제공 스님은 1960년 팔공산 대둔사에서 연곡 화상을 은사로 득도, 70년 파계사에서 고승율사를 계사로 구족계, 73년 서울 안양암에서 범홍율사를 계사로 보살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74년 대구 호심사 주지, 97년 원효종 중앙총회 의장, 99년 조동종 중앙총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강유신 기자

대승종 종정 사리친견 법회

대승종 종정 도암당 성도대중사 49재 및 사리 친견법회가 4월 14일 서울 신당동 흥도사에서 봉행됐다.

총무원장 법륜, 종회의장 법호, 문도회장 법산 스님 등을 비롯 200여 신도들이 동참한 이날 법회는 1부 49재와 2부 사리친견법회 순서로 진행됐다. 임제종 종정 용화 스님은 영가법문에서 “성도 대중사의 원용 무애사상은 대승종의 법통을 잇는

진리이며 환란의 시대를 헤쳐 갈 지혜”라고 말했다.

도암당 성도대중사는 1920년 용인에서 태어나 35년 대륜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88년 대승종을 창종한 후 조대종정에 취임했다.

스님은 지난 2월 25일 열반했으며 3월 1일 봉행된 다비시 후 40여과의 사리가 나왔다. 강유신 기자



4월 14일 대승종 종정 성도대중사 49재에서 임제종 종정 용화 스님이 법문을 하고 있다.

奉
行

세계불교 해동원효종 창종 및 벽운 해광 대종사 종정추대 법공 정산 총무원장 취임 대법회

宗 旨

見性成佛
轉法教化
和諍平和

宗正教示

定慧行願
和合和諍
衆善奉行

- 일 시 : 불기 2549(2005)년 4월 21일 (목) 오전 11시
- 장 소 : 대전 총무원 등부 보광사
- 전 화 : 042)283-5896

세계불교 해동 원효종 총무원 봉행위원회

보우승가대학 학인모집안내

불교계 최고의 인재양성을 위한 본 대학은 최초로 출가득도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출가자(행자)교육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불교의 제반의식과 경전강의 및 특강반을 개설하고 유명 강사진으로 교수진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알찬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과정

| 교육과정/내용 | 강의내용 | 강의일자 | 지도교수 | |
|--------------|--|--|------------|--------|
| 출가자(행자) 교육과정 | 출가득도를 희망하는분을 대상으로 기본교육 의식 습의 불공등을 집중강의하며 출가에 관한 모든것을 지도해드립니다 | 목, 금 | 본교 교수진 | |
| 경전연구과정 | 금강경, 원각경 화엄경 육조단경 선어록 등 대승경전등을 권위있는 교수님이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도록 강의함 | 금 | 신규탁 연세대학교수 | |
| 의식교육과정 | 기본반 | 사물다루는법 도량성 종성 각단예불 불공 시식 축원등 초심자도 여법히 의식을 집전할수 있도록 함 | 목, 금 | 능해스님 |
| | 전문반 | 각단불공 시연 대령 관육 시식 사십구재 천도재의식과 비라무 나비무등의 적법의식을 집중강의함 | 목 | 능해스님 |
| 특강과정 | 연구반 | 상주권공을 중심으로 천도재 방생 점인등 전문적인 의식을 위주로 심도있는 강의를 함 | 수 | 경허스님 |
| | 작법반 | 불교의식중 비라춤 나비춤 등 의식무를 배우고자 하는분을 대상으로 집중강의 | | 도명정안스님 |
| | 호적반 | 불교의식 의기중 호적을 배우고자 하는분을 지도함 | 화 | 대혜스님 |
| | 서예반 | 수행과 교화 취미활동에 도움이 되는 서예를 스님께서 직접지도 해드립니다 | 목 | 지홍스님 |
| 생활역학반 | 이서 택일 기초사주 궁합등 기초적인 지식습득과 전문적인 인생커운셀링등을 지도해 드립니다 | 금 | 대각스님 | |

2 장 소 서울 종로구 창신동 원각사내 (주차장 완비)

3 개강일자 2005년 5월 3일(금 3.25) 오후 2시

4 모집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반영합판시진2장, 각반 30명 이내, 선착순접수함)

5 원서교부 및 접수처 본교사무처 - 전화 02)763-5213, 팩스02)747-9290

보우승가대학 학장 월봉 합장